

시인의 마을



산다는 건  
싱겁다

시사를 담다

제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왕처럼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될까  
푸른 하늘의 십자가를 마  
음에 담을 수 있을까  
참말로, (당신+나=우리)처  
럼만 살면 되는 것일까  
물음표는 실개천 가득 향  
새 똥구멍처럼 싱겁다\*

\*싱겁다 - 짝맛이 거의 없거나 약하다. 맛이 특하지 않다. 세력에 어울리지 않고 좀 멧떡다  
\*향새 똥구멍처럼 싱겁다 - 사람이 아주 멧떡고 싱겁지만 힘을 늘릴조로 이르는 말

산다는 건, 싱겁고 싱겁네. 달이 없는 분계와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네. 다소 차이는 있음지 모르네.  
그 경계선을 낚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실개천을 따라 거닐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조잘조잘 목소리 부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시련 없이 순탄한 물의 흐름에 리듬을 더해 나누는 데 했다.

\*우리 제대로 틀리고 있는

거 맞아, 사는 게 다 이런 것인가  
'뭐, 싱겁기는 우리 같이만  
흘러가 보라고 해'  
"그러잖, 그래도 우리는  
흐르기도 하니 다행이지"

물소리 부부의 대화는 교여 오다가 썩어지는 이 자리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으로 마칠표를 켜는 다. 여전히 답이 없다.  
답을 찾으려고 하던 더욱 닳아나는 분계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아쉽지만, 독자의 뉘트로 남겨뉘다. 산다는 건, 싱겁고 싱겁다



박 여 범

웅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기고문

향에서 근무했을 당시, 제가 탐승수속을 해줬던 손님이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을 다쳐 출국을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손님을 신속하고 침착하게 처치해 주시는 구급대원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국민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소방공무원에 대해 관심이 생겨 여러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직접 화재가 난 건물 속으로 들어가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들을 보니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재난현장이나 위급상황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

나는 대한민국 소방관

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뛰었고, 저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고, 소방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인생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기들을 위해 술선수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육 진행을 도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훈련과 엄격한 생활지도 속에서 너무도



황 세 연

장수소령서

힘들었지만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소방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장수소방서 장계센터에 발령받아 신입소방사 실무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첫 결음이라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실무교육에 임했습니다. 소방사에서 진행된 실무교육은 소방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지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제가 소방관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인지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소방대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설

'오징어 게임'의 문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는 삶의 비망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게임이 주요 줄거리다. '오징어 게임'은 7080세대에게는 익숙한 놀이여서 더욱 친근감을 준다. 그러나 드라마 내용을 접하다 보면 유년기의 놀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죽었다'는 말에 있다. '죽었다'는 말은 유년기 놀이에서도 흔히 등장했다. 그 때의 죽음은 단순히 게임에서의 제외'를 의미하는 과장된 표현이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 버린다. 슬레인 영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고 난 후 움직임을 감지하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 죽인다. 이런 모습에는 잔재리가 처진다. 드라마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삶의 현실을 반영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득

의 불균형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데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 때문인지 텔레비전에서 생존 게임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배신과 거짓, 음모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치열한 생존 서바이벌 게임도 있다. '오징어 게임'은 현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그려낸 것으로 호평을 받는다. 하지만 '성적 지상주의'나 '승자 우선주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 즐겼던 '오징어 게임'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놀이의 힘은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부대끼는 시간을 갖는데 있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피가 내면 닦아 주며 놀이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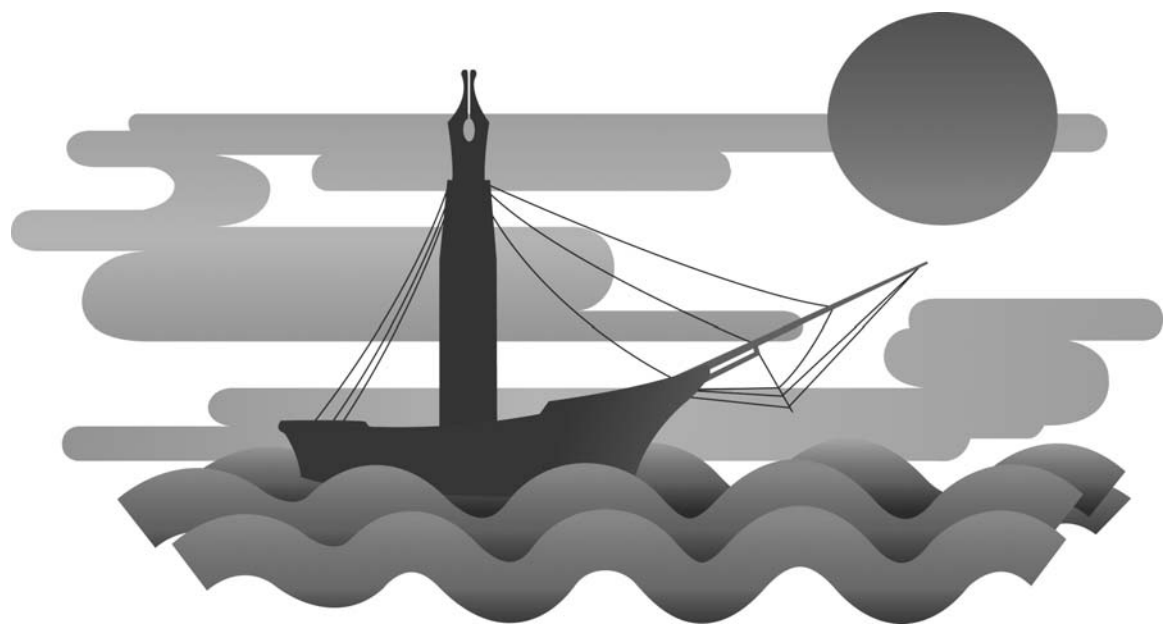
제12회 혼불문학상

2022년 제12회 혼불문학상을 공모한다.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며 신인과 기성 작가 구분 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200자 원고지 500매 이상이며 상금은 7,000만원(1편)이다. 당선작은 다산북스에서 출간한다. 접수 기간은 2022년 4월 30일까지다. 혼불문학상은 소설가 최명희(1947~1998)를 추모하는 상이다. 이는 최명희의 대표작 '혼불'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한국문학을 이끌어 나갈 문학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주문화방송이 2011년 제정했다. 혼불문학상, 혼불청년문학상도 동칭 혼불문학상으로 불린다. 역대 혼불 문학상은 2011년 제1회 최문희 난살현 심사위원이 맡았다. 최문희, 류보선, 하성란, 김탁환, 이병천씨 등이다. 2012년 제2회는 박정운 '뜨린 세스 바리' 심사위원은 박범신, 전경린, 하성란, 류보선씨 등이다.

2013년 제3회는 김대현 '홍도' 심사위원은 박범신, 정유정, 류보선, 이병천, 하성란, 최재봉씨 등이다. 2014년 제4회는 박혜영 '비밀 정원' 심사위원은 황석영, 하성란, 성석제, 전경린, 이병천, 류보선씨 등이다. 2015년 제5회는 이광재 '나라 없는 나라', 2016년 제6회는 박주영 '고요한 밤의 눈이다', 2017년 제7회는 권정현 '붉은 혀' 심사위원 이병천, 2018년 제8회는 전혜정 '독재자 리아인의 다른 삶', 2019년 제9회는 서철원 '최후의 만찬'이다. 2020년 제10회는 당선작이 없다. 2021년 제11회는 허태연 '플라멩코 추는 남자'이다. 한편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도 열리고 있다. 감상문 공모전은 제11회 수상작인 허태연 작가의 '플라멩코 추는 남자' 단 한 편을 대상으로 한다. 감상문 공모전은 좋은 독자가 좋은 작가를 만드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